

Chapter 6. Content Now II

걷는 전시, 프레임 너머의 이야기

한국 현대사진의 지평을 넓힌 작가 4인을 기리며

글 | 김성주 작가 mistyfriday@me.com

길게는 두 시간 넘게 진행되는 사진 강좌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위대한 사진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때다.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이들에게 좋은 사진을 많이 봐야 잘 찍을 수 있다는 뻔한 말을 하기 싫어 준비한 순서다. 반응은 꽤 좋다. 일제히 감탄사가 터지는가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감상평을 늘어놓는 날도 있다. 그럴 때면 내 작품도 아닌데 괜스레 으쓱해진다.

MUSEUM
HANMI

뮤지엄한미 삼청

“사진 값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찍어내면 되는데.”

올 것이 왔다. 작품 소개 말미에 덧붙인 역대 경매 낙찰 가격에 한 남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한정 인화의 희소가치부터 작품 제작에 소요된 장비와 인건비, 한국 사진예술에서 작가가 차지하는 위치로 그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마에 진땀이 흐를 만큼 열심히 답했건만 그는 마뜩잖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혹자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농치고 넘어가라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게 내 일 아니던가. 답을 찾기 위해 삼청동으로 향한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호기롭게 사진 전문 미술관 간판을 내걸었던 사람들이 있다.



사진예술의 대중화를 연 미술관 '뮤지엄한미'

뮤지엄한미의 역사는 2003년 개관한 한미사진미술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진예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국내에는 사진 창작을 후원하는 단체는 물론 작품을 전시, 소장하는 전문 기관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미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서 사진예술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유치했고 출판, 교육 사업을 통해 저변을 확대했다. 2009년 설립한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사진사를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2012년에 시작된 한미사진아카데미는 대중에게 사진 예술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2022년에는 서울 북촌으로 터를 옮기고 뮤지엄한미로 이름을 바꿨다.



뮤지엄한미 삼청은 세 개의 블록이 교차하는 순환형 구조로 설계됐다. 방문자는 중앙에 있는 물의 정원 주변을 거닐며 네 개의 전시실과 멀티홀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한다.

2 전시실과 4 전시실 사이에 있는 수장고 쇼케이스에서는 사진 전문 미술관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뮤지엄한미 내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 자료들이 이곳에 순환 전시된다.

벽 높이가 7m에 달하는 지하 1층 멀티 홀은 관람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 대형 인화 된 작품들과 영상, 소리를 접목한 미디어 아트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2층 라운지는 멤버십 프로그램, 강연 등의 행사에 활용된다.

뮤지엄한미의 백미는 전시가 시작되는 1 전시실에 있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방문자는 좁은 복도와 상반된 높은 층고에 압도당한다. 전시에 따라 이 공간은 깊은 어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벽에 적힌 전시 설명과 대표 작품들을 훑어보면 이내 그 적막에 익숙해진다. 마침내 2 전시실로 이어지는 좁은 틈을 통과하며 몰입은 극대화된다. 마치 뷰파인더에 댄 눈을 찌푸리며 장면 속에 빠져드는 것 같다.

그림 1: 물의 정원, 2: 수장고, 3: 1 전시실 입구 (출처: 뮤지엄한미)





그림 2전시실 - 2024년 진행된 전시 《밤 끝으로의 여행》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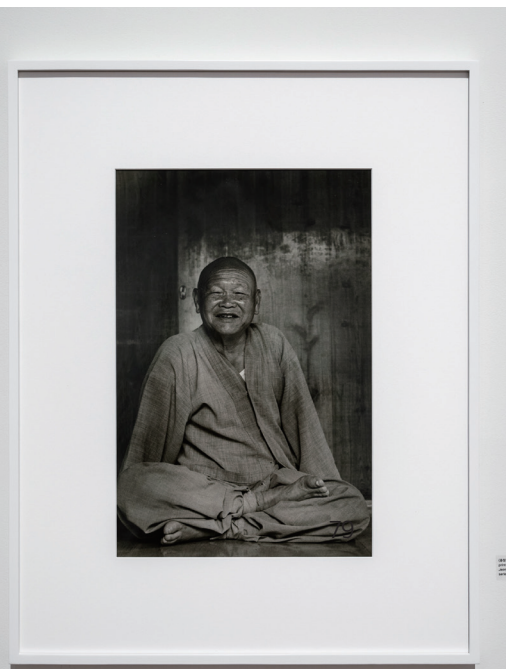
2026년 3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뮤지엄 한미 삼청에서 개최되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육명심·홍순태·한정식·박영숙》은 최근 10년 사이 작고한 사진가 4인을 기리는 전시다. 각자의 시선으로 한국 현대사진에 족적을 남긴 고(故) 육명심 (1933-2025), 홍순태 (1934-2016), 한정식 (1937-2022), 박영숙 (1941-2025)의 주요 연작 약 110여 점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된다. 1960년대부터 2010년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인물, 자연, 기록과 성찰 등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현중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진 전시 제목이 잘 어울리는 이유다.



(강원도 강릉), (백민인간, 1983. 3. 6)
Gangneung, Gangwon-do, Baekmin

그림 육명심 <강원도 강릉> (1983)

전시는 육명심의 <백민> 연작으로 시작된다. <검은 모살땀>, <장승>으로 이어지는 ‘우리 것 삼부작’의 첫 번째 작업에서 그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에 주목했다. 다양한 인물 군상 속에는 농경에서 산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던 당시의 시대상과 한국인 고유의 감수성이 담겨 있다. <백민> 연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인물의 정면성이다. 사진가와 주인공의 관계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를 통해 시간을 초월하는 기록 매체의 특성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





(청계천 삼일고가), (청계천)연작, 1971, Gelatin silver print
 Samilgoga over Cheonggyecheon, Cheonggyecheon series

그림 홍순태 <청계천 삼일고가> (1983)

홍순태의 <청계천>, <서울> 연작은 반 세기에 걸친 서울의 변화들이 신랄하게 기록했다. 전쟁 직후 피난민과 도시 빈민이 모여 살았던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은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한다. 이후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좇으며 작가의 시선은 청계천에서 서울로 확장됐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50여 년 간 청계천과 서울을 촬영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청계천 연작은 서울 도심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철거 사업으로 쫓겨난 주민들을 따라 광주대단지(현 성남시)까지 이어진다.



한정식 <경기도 용인, 1998, Details silver print
Yongin, Gyeonggi-do, 1998, Details series



1

전시는 한정식의 대표 연작 <고요>로 이어진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어진 작업에는 자연과 사물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던 그의 내적 세계가 표현돼 있다. 지하 1층 멀티 홀은 이번 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인화된 작품들이 넓은 공간과 시너지를 빚으며 작가가 추구한 사진의 추상적 미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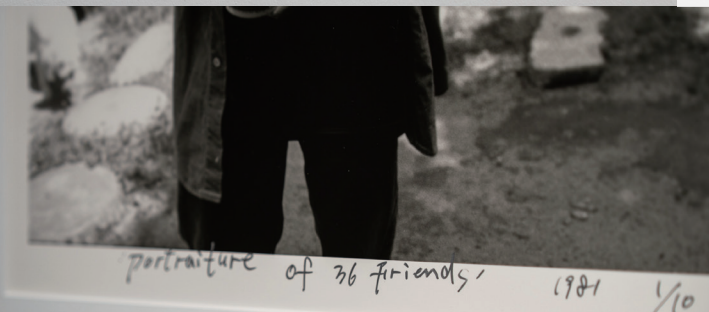


박영숙 <안순이, 1981, Portraits of 36 Friends series
Park Yeong-suk, 1981, Portraits of 36 Friends series

2

마지막 전시는 박영숙의 <36인의 포트레이트> 연작이다. 작가는 유방암 투병을 계기로 삶과 존재의 의미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와 가까운 36인의 인물을 사진에 담았다. 시인, 소설가, 교수, 조각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프레임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는 작가에게 치유의 과정임과 동시에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그림 1. 한정식 <경기도 용인> (1998),
2. 박영숙 <안순이, 엄직공예가> (1981)



출구 앞 물의 정원에 다다르면 내내 쥐고 있던 적막과 물입이 풀리며 관람이 마무리된다. 뮤지엄한미의 매력을 끝까지 즐기고 싶다면 미술관 뒤에 있는 후원까지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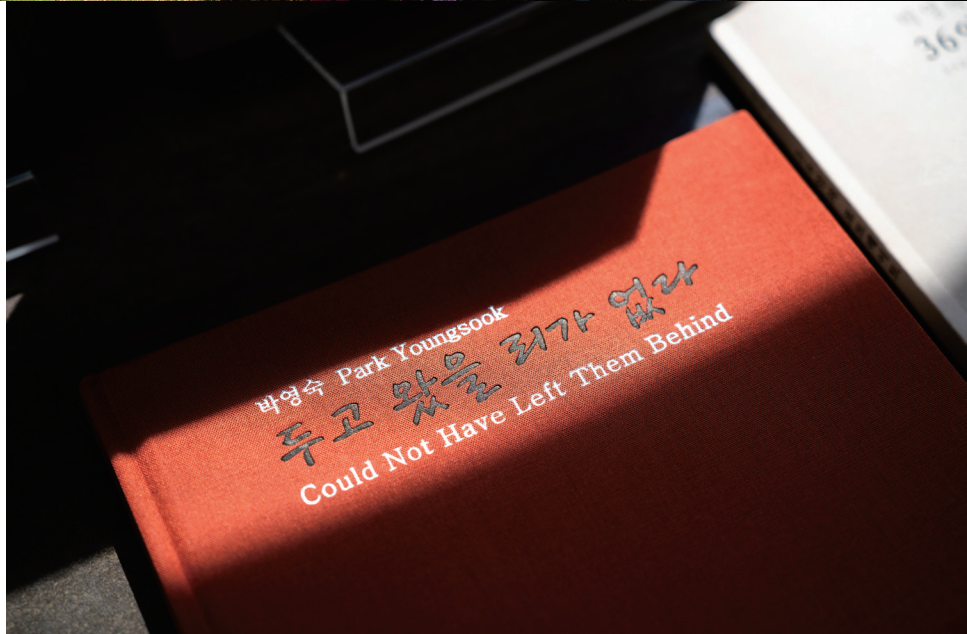
전시의 배경은 우리와 매우 가깝다. 덕분에 과거의 시대상을 매개로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동시에 한국 현대사진의 족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주변으로 고즈넉한 북촌 풍경에 맛집들도 즐비하니 이번 주말 가족들과 미술관 나들이 떠나보면 어떨까.



전시장의 QR 코드를 통해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뮤지엄한미]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길 45
- 관람시간 : 화 ~ 일 : 10:00 ~ 18:00
- 휴관 :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 관람료 : 15,000원(성인), 7,500원(학생, 경로)
- 문의처 : 02) 733 - 1315
- 홈페이지 : museumhanmi.or.kr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